

사설

'님' 과의 재회

13~16일 내설악 백담사에서 만해 사상 실천선양의 주최로 열린 '제1회 만해축전'은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스님의 가르침을 새삼 우리 시대에 되새겨 보게 한다. 탄생 1백20주년, 열반 55주년이란 숫자적인 의미에 앞서 아직도 완전한 '님'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어두운 이 시대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하나의 등불로 우리곁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만유(萬有)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무(無)한 인(人)은 사해(死海)와 같고 평화가 무(無)한 자(者)는 최고통(最苦痛)의 자라..."

3·1 독립선언 33년의 한 사람이었던 스님은 민족 최대 비극의 시대였던 일제 강점기에 이처럼 자유와 평화를 뜻과 행동으로 희구했던 지사(志士)였으며, '침묵하고 있는 님(부처님)'의 주현을 '사랑의 노래로 힘싸고 돌던' 선사(禪師)였고, 자비의 불법을 오롯이 육화(肉化)시켜 이를 영롱하게 시어화(詩語化) 할 수 있었던 민족 시인이었다. '만해축전'이 한국 불교계만이 아닌 범국민적 축제, 나아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만해스님의 종교 독립성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는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와야 제 모습을 찾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의 부패와 타락은 권력과 결탁 때문이었음은 명백하다. 권력계급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민중의 신앙으로 그 바탕을 삼아야 한다는 스님의 주장은 일제의 사찰령이 없었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권력과의 결탁은 종교 본래의 사명을 퇴색시킬뿐 아니라 중생들로부터 활발발(活潑發)하게 응수(應酬)쳐 나와 불교를 탄탄히 지탱시켜줄 신심(信

心)의 기력을 근원적으로 훼손한다. 때문에 해방 후 여러 번에 걸쳐 겪었던 법란의 원인도 독립성을 잃고 약한 체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교계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정치권력이 만만히 보아왔던 이유이기도 하며,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계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21세기 불교가 지금까지 시류에 따라 표류하지 않고 분명한 대안을 내어 시대를 이끄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만해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에는 자연과 생명의 비밀, 그리고 경이의 염(念)이 담겨있다.

오동일,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며, 흐르는 작은 시내와 저녁노을, 여기에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끝없는 생명력. 우리는 여기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과 생명사상을 배운다. 하얗은 미물 하나에서도 날뛴이 드러나는 불법의 오묘한 진리 또한 보이는 듯하다.

불교가 민중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 또한 현대불교의 지향점을 제시해준다.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보살의 마음은 고통받는 민중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동사설(同四攝)에서 찾을 수 있다. 출가나 재가 모두가 진정한 동사설이므로 민중을 아우를 때 민중 속에 있는 불심의 잠재력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이며 이 잠재력은 또한 예토(緣土)를 정토로 바꾸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면서 만해스님을 극복, 그보다 더 나은 경지를 닦기 위해서도 그를 다시 하나의 등불로 삼아야 한다.

김포학사 부실공사

지하층 누수·결로현상...풍림산업 "보수하겠다"

조계종 승가대특위 "법적 책임 묻겠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대한 공사결과 부실시공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돼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내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특별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김포학사 현장에서 공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리결과와 전체적으로 지하층 방수공사 및 환기공사 부실로 인해 누수와 결로 현상, 곰팡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공업체인 풍림산업과 설계 및 감리업체인 삼풍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 방법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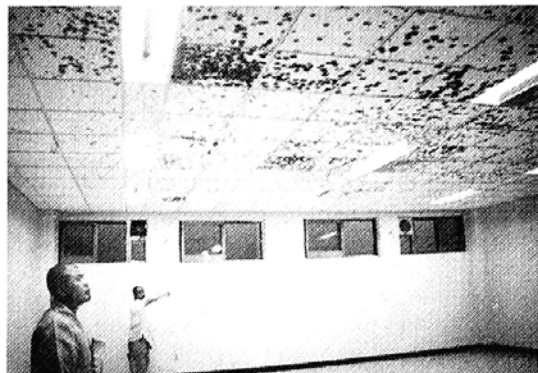
김포학사 특위 소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김포학사 건축물을 인수할 시점이 아니며 부실 부

변경계약 시점의 시중 자재비 단가(8%하락) 및 노무비 단가(30% 하락)의 조사 없이 공사비를 증액한 점 △감독관 부재로 인한 발주·계약부분의 총체적인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측은 11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술본부장과 건축담당 상무를 현장에 파견, 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포학사의 보수공사가 불가피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조계종승가대 학사 이전 문제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김포시립공사의 부실로 곰팡이가 발생한 김포 새 학사 비구니수행관 지하식당의 천정.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남북 북이 대화와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 연대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8·15를 맞이하여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동시법회를 열고 공동의 서원을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 실천행의 정법을 받들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단결하고 화합하겠습니다.

통일을 원치않는 의외와 반대세력을 배격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해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서원과 함께 실천행에 나설 것입니다.

김한곤씨 출마포기

중앙신도회 회장선거...백창기씨 단독후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후보 선거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한곤 전 중앙신도회장 대령(수덕사 신도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 등록이 예상되고 있는 백창기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추천을 받고 출마할 경우 총무원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게 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장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한곤 전 대령은 자신과 백창기씨가 함께 선거에 나서지 말고 중앙신도회가 긴급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차기회장을 뽑도록 할 것을 고산스님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창기씨는 5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독 출마이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장 선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 회장선거는 추대형식 또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305명의 대의원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는 미지수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더라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은 경우 회장이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3년5개월여간 회장 공석으로 있던 중신회가 더욱 표류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사미(니) 의제

전강련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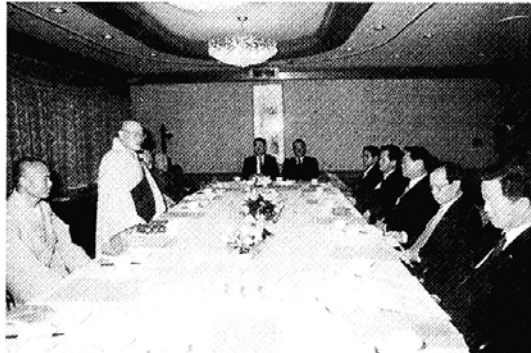
성명서 발표

조계종 소속 16개 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이 최근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미(니) 의제 시행안과 관련 '강원 학인이 의제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교계신문에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통강원연합은 사미(니) 의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회활동에서 신도들로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 상실 △강원 학인들이 사미가사인 '만'의와 '행진'을 이미 착용하고 있어 또다른 의제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화된 의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인 관계자는 "예비승려인 사미승이 중단과 어른 스님들의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일 3당 불자회담을 초청, 의원발의로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3당불자회 "전사법 개정 적극동참"

고산스님, 회장단 초청간담회에서 의원발의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일 3당 불자회담을 63빌딩 백리향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의원발의를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이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보호, 풍치보존에 위해를 주는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형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전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들의원은 "전사법 개정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조계종이 마련한 개정안 가운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 등' 모호한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

가 명시돼야 한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철, 국민회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태고종 총회의원 선거

9월1일부터 한달간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6일 서울 중무처 회의실에서 각 시도 교구 총무원장 회의를 열고 제10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9월 1일부터 30일 까지 각 종무원별로 치르기로 했다. 중앙종

현대만평

수해복구

허물어진 마음까지 복구됐으면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2.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원음의 중앙아함, 잡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천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제의 능엄경 9, 10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미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법경, 대일경, 금강정경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고등학교(2년)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회합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영합판사진 3매 ④ 불교고등학교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9년 8월 7일~ 99년 9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9년 9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합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 732-1206 ~ 8 /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님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법회사상·반야사상·회암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역개론·신종사상·불교미술·법교사상·포교방법론

2년 교과목 근원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의처

☎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1999년 9월 4일(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 의식 · 중주 ... 장엄법	· 백일·돌·생일 의식과 결혼 의식 · 장례 의식 (1) ... 일반 의식 · 장례 의식 (2) ... 임종·매장·화장 의식 · 재공 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 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회합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③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영합판사진 3매	99년 8월 7일(토)~ 99년 8월 30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통신반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 ~ 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